

환영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정체성 코스(Identity course) 첫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밤 이렇게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가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몇몇 큰 질문들의(big questions) 답에 대해 물어보고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코스에 오는 동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주시해도

오늘 밤에 여러분께서 오신 동기는 모르겠지만,  
대중적인 동기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비슷한지 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주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창조물에서 무언가를 봅니다.  
이 세상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디자인된 세상을  
보며, 그리고 생각합니다

‘삶에는 보고 만지는 이상의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운전을 하시고 자동차를 보면서  
스스로…,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있잖아 어젯밤에 바람이  
헐(HULL)의 고철마당에 불더니,

글쎄, 자동차가 되었어!”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동차는 설계되었다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확실하게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시겠지만,  
기독교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해서 오셨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신 이유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삶은 매우 바쁩니다. 우리는  
삶의 쳇바퀴에서 그냥 뛰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지만,

아마도 단조로운 삶의 반복에서 나와서

이러한 큰 질문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같은 개인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보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을 알고 싶어 오늘 밤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천 친구에게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동안 크리스천을 지켜보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오싹하고 스토킹하는 것 말고요.

그 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기독교가 믿을 만 한 것인가,

기독교에 어떤 본질이 있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크리스천 친구가 오라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안 오겠다고 하시다가,  
하도 그 친구가 오라고 해서,

그리고 나도 같이 와서 배우겠다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 크리스천이고

갖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질문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알아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고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께서  
이 코스에 오셨는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옳은 곳에 오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우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욱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알 때,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와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우리가 품은 의문들에 대한 답들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대중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의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갖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갖가지 견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가족들이 말해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숨쉬는 문화 내에서 습득하기도 합니다.

역사에 존재하셨던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탁자 위를 보시면,  
이 책들에 대한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들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로 눈치채실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정말로 작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책은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적었고,

2천년 뒤에,  
우리가 오늘 밤과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과 사명에 대한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책 읽기를  
별로 즐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우아!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책을 탐독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는다고 하셔도,

이 책이 좋은 점은 정말로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 읽기를 그렇게 즐기시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이 책은 우리가 함께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해주는지 알아보시다.

그럼 여러분께서 집에서 읽고자 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을 먼저 펴서 한번 쪽 훑어 보시고  
펜을 들고

심지어 형광펜도 들고요.  
메모도 적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줄도 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룹리더들은

여러분께서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 답을 찾아내길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번씩  
우리가 모일 때 할 일은

제가 요한복음의 부분을 펼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이루려 오셨는지 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3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심지어 오늘 밤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것들은 진실로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것 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체성(Identity)부재와  
정체성을 박탈당한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신원이 도난 당할까봐  
걱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간단히 저 신상에 관한 것 즉,  
저는 제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은행계좌도 알고,,  
이런 간단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시다시피, 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 알아갈 수록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낼 것 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예수님에 관한 것이 대단한 것은

그는 정보전달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매일 매일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매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가 던지는 몇몇 대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일곱가지 대중적인 질문들을 선정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묻는 일곱 질문입니다.

매주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잠시 설명을 하고,

테이블에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제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문화의 대중적인 질문 중의 하나를  
요한복음에서 배운 내용으로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첫 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테니,  
테이블에서 몇 분 동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께 드리는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쉽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죠.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는 왜 오늘밤 오셨나요?

세 번째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번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답을 얻고 싶은 한가지 큰 질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 각 조에서 몇 분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